

■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광남일보 공동협약 MOU

“지역경제 지속 성장·공동체 가치 실현에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성화 ‘맞손’
여성 경제인 활동 지원…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키로

광남일보와 광주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가 8일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이날 광남일보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광남일보는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 회원사와 여성 경제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는 광남일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호 지원과 협력을 위한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은 “김은조 회장님과 추인숙 총무이사를 비롯한 광산구 여성경제인협

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충분히 좋은 MOU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며 서로 협력해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를 맞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출발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조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도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6년 새로운 병오년을 맞아 광남일보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협약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과연 회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고민을 거듭할수록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경제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함께 만들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갈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오늘의 협약식을 기반으로 광남일보와의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여성 경제인들 역시 좋은 기운



8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광남일보-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 공동 협력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한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과 김은조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받아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MOU를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실질적인 협업 사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광산구 여성경제인협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구 산하 여성경제인 협의회로, 광주지역에서도 구 단위로는 유일한 조직이다. 17년간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54개 업종의 여성 경제

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일 업종 간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만큼 체계적인 운영과 끈끈한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역 내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광주고법, 조정제도 운영·홍보 ‘전국 최고’

조정센터 전국 1위·우수위원 배출 등 겹경사
황진희 고법판사 ‘법원사람들’ 문예상 수상도

광주고등법원이 조정제도 운영과 홍보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겹경사’를 맞았다.

광주고등법원은 8일 “광주법원 조정센터가 탁월한 조정 성공률과 제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조정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법원 조정센터는 박병철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센터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또 1건의 조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던 6건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둔 서재문 광주고법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광주고법원은 전날 청사 중회의실에서 우수 조정센터 포상 전수식과 함께 조정위원 감사장, 법원의 홍보자인 ‘법원사람

들’ 문예상 시상식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포상과 상패를 각 수상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자체 선정한 우수 조정위원 3명(김상배·유한별·김꽃비)에게도 법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병철 센터장은 “당사자를 존중하고 조정하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재문 조정위원은 “가장 좋은 판결보다 가장 나쁜 조정이 낫다”는 말처럼,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가족 간 우애까지 지킬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법원 조정센터가 탁월한 조정 성공률과 제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조정센터로 선정됐다. (왼쪽부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박병철 광주법원 조정센터장,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아울러 황진희 광주고법 판사는 법원홍보지 ‘법원사람들’에 수필을 기고해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과 법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문예상을 수상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와 국민 친화적인 사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담양장학회에 장애인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 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장애인장학금 100만원 전달

(재)담양장학회(이사장 정철원)는 8일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희)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인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는 110명의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와 판로 개척에 힘쓰며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희 회장은 “담양군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탁이 장애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담양장학회는 지난 2023년 장애인장학금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약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해당 장학금은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해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난 7일 병오년을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광주조달청, 국립 5·18민주묘지 신년 참배

“민주·인권·평화 가치 지키며 공정한 조달행정 보답”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지난 7일 병오년을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김우환 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배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민주·

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5·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으로 그 뜻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양신철 화순경찰서장 취임

“신뢰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사회 안전망 구축”

“군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섬김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제84대 화순경찰서장에 취임한 양신철 총경(사진)은 “화순경찰서에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한 화순과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모토로 더욱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이어 “경찰은 군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믿음직한 화순경찰이



되도록하겠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양신철 서장은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북청 홍보계장, 전북청 경무계장, 광주청 청소년보호계장, 광주청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취업 준비 청년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미취업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

70명 행정업무 보조 등 지원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취업 준비 청년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취업 준비 청년과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군정 업무를 체험하고, 취업과 연계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공직에 대한 진로 탐색 등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2월 13일까지 총 6주간이며, 2회차로 나눠 운영된다. 1회차에는 1월 7일부터 23일까지 38명, 2회차에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32명

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현장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군정 이해도를 높이고자 청년 지원 사책 홍보, 자살 예방 교육, 하임리히법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인턴제가 청년의 취업경쟁력 강화와 공직에 대한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고흥 발전의 주역이 될 청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